

“통합신당, 제대로 된 정책·인물 내놔라”

지역 시민단체, 무공천 부작용 보완 등 ‘개혁적 대안’ 요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선언에 이은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에 따라 후보 난립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적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 창당과 무공천 선언에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갖고 있다”면서 “통합 신당은 제대로 된 정책과 인물을 제시하고, 구습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인 이들 단체는 이날 “신당 창당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과거 선거에서 지역민의 선택 폭이 좁았던 관행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에서 나온 결과이다”고 표현적으로도 밝혔다.

하지만 “통합 신당 창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민 앞에 제대로 된 정책과 인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운 상임대표는 “새정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정당의 개입을 줄이고 후보 난립이 아닌 새로운 후보의 등장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공천에 따른 유권자들의 혼란과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제시 ▲무공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제시 ▲광역 선거에서 시

민참여 확대 경선과 개혁 공천을 실시하는 등 3개 안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무공천에 따른 여성과 소수자 대변세력,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 장애요소를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천방식이 요구된다”며 “후보 선출권을 시·도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준다는 각오로 시민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선거 과정에 주요 아젠다를 발굴,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FTA 체결 농축산농 피해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가 최근 한·호주 FTA 타결에 이어 한·캐나다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농가에 대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13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노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잇따른 FTA 타결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지역 농축산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에 FTA 피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부처·국회 등에 수차례 방문해 건의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그동안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 운동장 확보 등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 정책과 친환경축산 안전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배합사료 안정기금 2조원 조성, 산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뉴욕 맨해튼 건물 폭발 6명 사망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이스트 할렘지역의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하자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됐다.

/연합뉴스

새정치비전위 본격 가동... 위원장에 백승헌

“국민 섬기는 새정치 실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정치혁신안을 만들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3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비전위는 이날 오전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초청으로 첫 회의를 열어 상건례를 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승헌 변호사가 위원

장을,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회의 후 ▲국민 눈높이 ▲국민 이익 ▲변화·실천을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밝히며 “당에서 받기 버거운지언정 이번 기회에 새 정치가 될 수 있는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통합신당은 ‘우리가 옳으니 국민은 따라와라’ 하는 식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치를 다짐했다.

안 위원장은 “상대 당을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겠지만 먼저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를 선도하면 거대 여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들에게는 “준비가 돼 달라. 과감한 개혁안을 과연 신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안을 저희에게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 18일 개막

중·목각 인형극 등 축하공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저력을 아시아 각국에 선보이게 될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광주’ 개막행사가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술적으로 승화한 예술작품으로 꾸며진다.

제)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정동채·이하 추진위)는 오는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행사 개막식을 개최한다.

개막식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빛, 광주’를 주제로 3부로 나뉘어 공연이 진행된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이남 작가의 작품 상영, 화합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무용,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희망과 번영을 노래하는 대합창 무대 등으로 꾸며진다. 세부적으로 행사 1부에서는 ‘빛의 태동’을 주제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 2부 ‘교류·공존의 빛’에서는 퍼리연주, 미디어 아트, 현대무용이 어우러진다.

축하공연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중국 대표인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목각인형 특별극(원숭이 길들이기)을 선보

이로,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텐바쿠미가 공연한다.

광주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빛골 아리랑’, ‘청소년 문화 교류’, ‘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비엔날레’, ‘광주세계아리랑축제’ 등을 비롯해 25개의 크고 작은 문화 교류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정동채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장은 “아시아 3국의 문화교류와 화합은 명실공히 동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디딤돌이자,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의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광주와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취안저우 시와 요코하마 시는 지난달 13일과 25일, 각 도시에서 개막식을 갖고 연중 문화행사에 돌입했다. 이들 도시는 광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 문화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는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한·중·일 각국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해 탄생한 행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담양군의회 의장 명의 설선물 배달 실무자 경고

전남도 선관위

담양에서 군의회 의장 이름으로 설 선물이 배달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담양군의회 사무과장을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의회는 지난 설을 앞두고 4만5000원짜리 사과 27상자를 전·현직 기관·단체장 등

에게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을 군 의회 의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7명 중 담양에 사는 사람은 20명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의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무과장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의회에서 주민에게 화장품 등을 선물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주홍 ‘정부, 국회 자료 누장 제출 방지법’ 발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13일 행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회에 대한 자료 누장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의사실정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및 산하기관이 회의를 앞두고 시간에 쫓기듯 자료를 누장 제출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 중 업무보고와 같은 상시로 제출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전까지는

제출돼야 심도있는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이날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과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법’을 제정 발의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경매”만이 살 길이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권리분석 등 정보 제공